

[경제]

대졸 비정규직 157만명

1년 새 10만명 급증...여성·50대 이상 비정규직도 늘어

통계청 조사,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001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성이나 50대 이상,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인 사무종사자나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규모도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8천원으로 정규직보다 71만원 적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천535만1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45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2만6천명이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01년 8월 통계작성 시작 이후 처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01년 363만5천명, 2002년 383만9천명, 2003년 460만6천명, 2004년 539만4천명, 2005

년 548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늘다 올해 처음 줄어 들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5.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4년 8월 37.0%로 최고치에 달했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8월 36.6%로 소폭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중 545만7천명 중 여성은 지난해에 비해 5천명 늘어난 275만2천명에 기록됐으며 50~59세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1천명, 60세 이상

은 6만8천명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 규모가 3만1천명 줄어든 남성이나 젊은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나 사무직·전문기술 행정관리직에서도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545만7천명 중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56만5천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9만7천명 늘었다.

종종이하나 고졸 비정규직 근로자가 각각 3만2천명, 9만1천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직업별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인 사무

종사자나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지난해 8월에 비해 각각 4만1천명, 3만3천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119만8천원으로 정규직의 190만8천원에 비해 71만원 적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주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28.8%에 불과했으며,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도 22.2%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주5일제로 일하는 경우가 38.3%에 달했으며,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도 31.2%로 비정규직 보다 높았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내 근로복지 수혜비율을 보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30.3%,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27.7%,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는 21.5%,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는 23.1%에 불과했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7.0%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리랑 2호 '이중고'

생후 2개월 걸음마 연습중 북 핵심ilm 지역 촬영 임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리랑2호 위성이 걸음마 연습에 갑작스럽게 북한 핵심ilm 지역을 촬영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23일 과학기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2호는 7월28일 러시아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발사된 이후 지난 두달동안 위성체 건전성 평가, 위성분체 기능점검, 탑재 카메라 오염방지 작업 등 초기 운영 작업을 마쳤다.

아리랑2호는 이어 내년 1월 지구영상 사진의 상업 판매를 목표로 지구를 촬영한 영상에 대한 검·보정 작업, 영상의 제품화, 고객센터 점검 등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항우연은 지난 해 7월 프랑스의 스팟이미지(Spot Image)사와 아리랑2호의 위성영상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 스팟이미지사를 통해 위성영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핵심ilm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아리랑2호는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의 우선 순위를 북한 핵심ilm 지역 촬영으로 변경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항우연은 아리랑2호의 영상 검·보정 작업과 북한 핵심ilm 지역 촬영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지난 16일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으로부터 "그동안 북한 지역을 한번도 촬영하지 못해 국민세금으로 만든 2천 600억원짜리 위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연합뉴스

IMF이후 경제 '민감' 경기 소비 투자 '위축'

商議 '경기변동 특징'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기, 소비, 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경기, 소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1998~2006년) 한국 경제의 변동성은 그 이전(1990~1997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소비와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각각 2.9배, 1.9배 증가했다. 또한 이 같은 변동성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3%에서 4.3%로 떨어졌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은 7.1%에서 2.9%로, 9.9%에서 7.7%로 각각 떨어졌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로 ▲국내 성장구조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역할 축소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경기 사이클 ▲경기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 등을 꼽았다.

상의는 "외환위기 이전 7.5%포인트에 달했던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이후 2.4%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순환 주기가 외환위기 이전 4년에서 이후 3년 정도로 단축됐고, 지난해 이후 경제성장(GDP)과 소비, 투자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소비와 투자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즉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뮤직 세어링 MP3 'K5' 23일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 선보인 뮤직 세어링 MP3 'K5'(모델명: YP-K5). K5는 슬라이딩 구조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내장한 제품으로, 이어폰 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합뉴스

'디지털 황제' 삼성전자 100억달러 신화

반도체·TV서 전인미답 기록 2010년 115조 세계 3위 도약

'디지털시대의 황제' 삼성전자가 올해말 D램 반도체와 TV 부문에서 각각 '매출 100억달러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영토를 점령한다. 2000년 이후 해마다 신기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100억달러 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영토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D램 반도체가 단일 반도체 제품으로는 사상 첫 매출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3년 64K D램을 개발하며 D램사업에 진출한 지 불과 23년만에 이룬 쾌거다.

92년 처음으로 최고봉을 등장한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D램 시장 1위가 확실시되는 삼성전자는 이 기간 매출은 11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입한 TV 10대 가운데 1대는 삼성TV'라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TV 매출은 2004년 48억달러에서 2년새 2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100억달러 신화의 출발점은 뉴 밀레니엄을 맞이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2000년 D램, 낸드플래시, 시스템LSI를 포함하는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100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995년 반도체 호황 이후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올해 반도체 매출은 3·4분기 현재 14조원이여 연말에는 20조원,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10년까지 매출을 115조원 이상으로 늘려 전세계 시장이 1천억달러 규모(매출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소비자들이 구

입한 TV 10대 가운데 1대는 삼성TV'라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TV 매출은 2004년 48억달러에서 2년새 2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100억달러 신화의 출발점은 뉴 밀레니엄을 맞이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2000년 D램, 낸드플래시, 시스템LSI를 포함하는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100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995년 반도체 호황 이후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올해 반도체 매출은 3·4분기 현재 14조원이여 연말에는 20조원,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10년까지 매출을 115조원 이상으로 늘려 전세계 시장이 1천억달러 규모(매출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소비자들이 구

은행들, 가계보다 中企대출서 큰 마진

한은 국정감사 자료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에서 쟁기는 명목예대마진이 가계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수익률은 연 5.67%로 자금조달비용(저축상수인 평균금리)인 3.62%를 뺀 명목예대마진이 2.14%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익률은 연 5.39%로 자금조달비용 3.62%

를 뺀 명목예대마진이 1.77%로 중소기업 대출마진을 크게 밀었다.

2004년의 경우에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의 대출수익률은 연 5.97%로 주택담보대출 수익률 5.86%보다 높았으며 당시의 자금조달비용 3.75%를 뺀 명목예대마진은 중소기업 대출이 2.22%, 주택담보대출이 2.11%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명목예대마진은 각각 연 2.06%로 동일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은, 적자·방만 경영 '뭇매'

與野, 국감서 질타

한국은행에 대한 23일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적자 문제 및 방만한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은이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은은 김영삼 정부때는 2조2천775억원 흑자, 김대중 정부때 15조1천957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노무현 정부 출범후 3년6개월동안 누계 적자액(6월말 기준)이 1조2천26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한은이 ▲상위직급 정원 과다 증원 ▲편법적 임금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운영 등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은이 개별법을 적용받아 정책과 예산에서 견제능력이 약화 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162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3천억원을 4배나 초과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이다"면서 "모든 경제정책을 이에 준해 짚 계획이다"고 기존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지속가능보고서지표

한국 특성 맞게 개발

산자부, 경제 사회 환경 3개 분야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과 성과 및 계획 등을 대외에 알리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지표가 처음으로 개발됐다.

산업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BSR)의 세부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이 일반적인 목표인 이윤이나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더 나아가 고객과 종업원,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관심을 넓히고 이를 위해 사회·환경적 가치에 기울이는 활동, 성과, 계획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보고서다.

산자부는 이번에 개발된 BSR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의 14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현재 지속가능보고서의 글로벌스탠더드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GRI의 지표 중 복잡하고 중복된 것은 일부 통합했으며 국내 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관계,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에 대한 지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개발된 지표들은 유한킴벌리, 신한은행, 대우증권 등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거쳐 객관성을 높였으며 실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대한상의 회원 기업 5~10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테스트를 한 뒤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하성 펀드 '광폭행보'

복수의 기업지분 매입 경영진 접촉

장하성 펀드가 갈수록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일진'이 시작된 태광그룹을 상대로 법적수단 강구에 들어간 데 이어 복수의 기업지분을 매입한 뒤 해당기업 경영진과의 접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장펀드가 주식시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난 8월 하순 이후 한동안 증시에서는 저평가 자산주들의 주가가 들쭉거렸다.

장펀드의 매입사실이 공개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이 모두 막대한 보유자산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충분히 주주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대개 이런 기업들은 섬유·식품·건설 등 전통산업에서 오너의 지배력이 강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알짜기업'으로 소문난 곳이 대부분으로,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B그룹, D그룹 등이 대상이라는 설,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증권그룹이 타깃이라는 설 등이 무성하게 제기돼왔다.

지난 주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흘러다니던 벽산건설의 장펀드 매입설과 이에 따른 이들의 상한가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제2의 태광산업'은 더 이상 '무뎀'가 아니라 '사실'이 됐다.

장 펀드는 태광그룹의 투자사실을 시인한 것과 함께 펀드 투자자들이 2년내 자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도 처음 공개했다.

사모펀드의 성격상 그간 세부내용에 대해 공개를 삼가던 장펀드가 이런 사실을 밝힌 점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확산된 '뭇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성하이텍	가공기술/CNC선반/VMCT/3차원측정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952-1441
H&T아웃소싱시스템	[SK텔레콤]114 고객센터직 모집 [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4	062-350-6333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사무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2-653-0051
㈜화인코리아	정규직 분야별 시연모집(사원/나주/천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1-330-4520
인터코리아(엔터테인먼트)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신선코너 기능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800~2000	10/25	062-224-1919
금호생명	금호생명 남녀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600~3800	10/26	062-360-5203
세진텔레콤	고환기분야 기술직 사원(정규직)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27	062-522-8888
㈜한텔	(주)한텔 Set-up 및 정산, 현장관리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30	010-6647-4790
㈜이화우레탄 [평동공정]	출고 1명 및 생산직 3명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30	062-944-9022
조양정밀공업	정규직 생산인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30	062-946-2511
세광기업	관공사 수주업무 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31	062-675-9721
㈜거주건설	건축기사 토목기사 현장직구합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31	062-573-0080
㈜서울기연	태양광 설비설계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31	031-436-2030
㈜태성기업	경리,회계관련, 컴퓨터 업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31	062-382-8204

(광주직접회사 512-6210 제공)